

2011 년 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20

로마서에서

(4)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요소와 범위

성경: 롬 8:3, 1:3-4, 8:14, 12:2, 4-5, 9 상, 10 상, 12 하, 14-15, 18, 15:29

- I. 로마서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8:3) 것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12:4-5)의 산출을 위해 사람이 하나님 되게(1:3-4) 하려 함이다—을 볼 수 있다.
- II. 로마서에 있는 깊은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죄인들이 구속받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8:3, 1:3-4, 3:24, 5:10, 8:14, 29-30, 12:2, 4-5.
- III. 로마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초점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한 목표나 뜻이나 방향이 없다—5 절.
- IV.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을 얻는 것이다—계 4:11, 엡 1:5, 9, 롬 12:2, 4-5.
  - A.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2, 5 절.
  - B.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동역하고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2, 5 절, 고전 1:1-2, 12:12, 27.
  - C. 우리가 몸의 합당한 지체들로서 교회 생활 안에서 행하고 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14-27 절, 롬 12:2, 5, 엡 1:1, 5:17.
- V.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헌신의 목적은 우리가 몸을 실재화하고 몸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롬 12:1-2.
- VI.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된 영에 따라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다—1:9, 7:6, 8:4, 16, 12:11.
- VII. 로마서 12 장 5 절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요소와 범위라는 것을 가리킨다.
  - A.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지체들의 요소와 범위가신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5 절.
  - B.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한 몸이다—4-5 절.

1. 로마서 12 장은 몸을 말하되 유기적인 연결의 각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함께 연결하는 생명에서 말한다—4-5 절, 6:4-5.
2.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의 몸의 다른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한다—12:5.
  - a. 몸은 조직체나 사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산출된 유기체이다—요 15:1.
  - b. 몸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함께 유지되고, 몸의 실지는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존재한다—4-5 절.
  - c. 몸 안에서 유기적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분의 몸 안에 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몸의 일부이다—롬 12:5.
  - d. 몸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단체가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유지된다.
3.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머무는 문제이다—8:2, 6, 10-11, 12:5.
  - a. 몸의 실행은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유기적 연결 안에 머무는 것이다—요 15:4-5.
  - b. 그리스도의 몸을 실재화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충분히 체험해야 한다—고전 6:17.
  - c.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재화하지 않는다면 실지에 있어서 우리는 몸 밖에 있고 몸을 떠나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서로의 지체가 되게 하는 요소이시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인 범위이시기 때문이다—롬 12:5.
  - a.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실지로 몸의 지체들이 아니다.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요소와 범위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배워야 한다.

**VIII. 로마서 12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요소와 범위로 체험하고 누린 결과를 본다.**

- A. 우리는 몸의 의식을 갖는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5 절.
- B. 몸의 생활 안에서, 그리고 몸의 생활을 위해 우리는 최고의 미덕이 있는 생활을 한다.
  1. “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 9 상, 10 상, 5:5, 8:35-39, 15:30.
  2. “ 환난 가운데 견디며” —12:12 중.
  3. “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8 절.
  4. “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4 절, 15:29.